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최

닭 및 계란에 대한 작문 현상공모 우수상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상)

따뜻한 계란



성 명: 임 래 석

학교명: 소년의집 실업중학교
2학년1반

국민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가을 어느날이었을까?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는 숙직이셨기 때문에 교무실에
혼자 머무르고 계셨다. 하루 밤을 학교에서 주무셔야 하
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종일 우리와의 힘겨운 싸움 때
문인지 무척 피곤해 보이시는 눈으로 땅거미가 깔리는
먼지나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교실 청소를 마친
나와 해수는 조심스럽게 교무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 선생님 청소 다했는데요.”

“응 그래 수고했구나 늦지 않도록 바로 집에 가거라”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셨
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밥상에 오른 삶은 계란
을 보니 선생님 생각이 났다. 저녁에 배고프실 텐데, 나
는 계란을 몇개 신문에 싸서 학교로 갔다. 어두운 운동
장에 멀리 교무실에서 나오는 빛을 보며 건다가 현관앞
계단에서 그만 엎어지고 말았다. 무릎이 깨지고 손에 들

고있던 계란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행히도 단 한개가 조금 금만가고 깨지지 않았을뿐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뛰어 나오신 선생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 옷에 묻은 계란을 털어주시며,

“왜 학교에 다시왔니?”

“지…… 선생님 배고프실 것 같아서……”

나는 흠뻑은 손에 쥐고있던 금이가 흰자가 보이는 계란한개를 내밀었다. 작게 웃으시며 계란을 받으신 선생님은 “아직도 따뜻하구나”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교무실로 데리고가 선생님과 나랑 의자에 마주앉았다. “래석아 이 계란을 보니 옛날 일이 생각나는구나”

십년 전 그 때 선생님은 어느 시골학교에 지금처럼 6학년을 맡았었다. 그때 제자중에 하나가 학교를 한달, 두달 계속 오지 않는거였다. 선생님은 주위 친구에게 집을 물어 찾아갔는데 가시나무 호박덩쿨의 담에 허물어 질듯한 초가집 한채, 조그만 방문을 열고 나오시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

할머니는 손자녀석이 학교에 잘 다니냐며 묻는데 선생님은 차마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담장에서 암탉이 금방 낳은 따뜻한 계란을 선생님의 한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어쨌든지 우리 손자녀석 사랑되게 해주세유 선생님” 하셨다.

그 때 선생님은 눈시울이 뜨거웠고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사랑이 갓낳은 계란의 따뜻함처럼 잊을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이 양손에 계란을 꼭쥐고 눈뚱길을 걸어나오는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가 선생님께서는 내가 준 금이 간 계란을 두손으로 모아쥐며 “래석아 조금전 내가 준 계란을 받으며 이 선생님은 옛날 그 할머니를 대하는듯 했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이가 학교를 못은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매일 신문을 팔아야 했던거야 난 양손에 쥐어주는 계란의 따뜻함을 잊지못하듯 내가 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선생님께서 식은 계란을 받으며 따뜻하다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사 랑



이 경 희
(충남·천원·풍세·보성)

나에게
소중하게 기리는
별 하나 있어
어둔 밤에도
외롭지 않아 좋으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 하나 있어
홀로된 거리에서
고독하지 않아도 좋으리
기슴안 고요히
간직하고픈 소망이
타오르는 노을같은 것임을

아!
나에게
작은 사랑 하나 있어
이 가을날
정녕 서럽지 않아도 좋으리